

# 다니엘서 - 제49번

드러나는 진리들: 한밤중의 외침, 이슬람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최종 시험 과정

Jeff Pippenger  
2024-01-13

1798년에 올라이 강의 이상이 봉함이 풀리면서 일어난 지식의 증가는 시험의 과정을 낳았고, 그 과정은 1844년 한밤중 외침 운동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지금 봉함이 풀리고 있는 말세의 한밤중 외침은 그 역사로 대표되어 왔으며, 그 역사에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시험의 진리들을 포함한다. 이는 지금 봉함이 풀리고 있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밀러의 보석들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841년, '42년, '43년, 그리고 '44년에 받아들인 진리들은 이제 연구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장차 큰 음성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것들은 간절한 결의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371.

우리 시대 한밤중의 외침의 예언적 기별의 주요 주제는 세 번째 화인 이슬람의 역할이다. 이슬람의 세 가지 화는 하박국의 두 판에 모두 표상되어 있다. 마지막 시대의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지체하는 때가 도래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에서부터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밀러주의 역사 속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기별도 엑서터 야영 집회로 대표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그 시점에 이르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갈라진다.

예루살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한 이사야는, 그 환상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봉해진 책과 같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재림주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사탄의 상징을 거룩한 상징으로 바꾸는 일은 토기장의 진흙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 일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탄의 상징이다. 다니엘이 'tamid'라는 단어를 이교의 상징으로 사용했을 때, 그는 상징적 목적을 위해 그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단어가 '항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용(이교)이다. 그 용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 용은 그 전쟁을 천 년의 밀레니엄이 끝나는, 곧 그가 마침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한다.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여, 땅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나가 그들을 모아 전쟁하게 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에 올라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였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지니 그들은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7-10.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권세 가운데 둘째인 짐승(교황권)과, 그 세 권세 가운데 셋째인 거짓 선지자(미국)은 모두 십자가 사건 이후 역사 속에 등장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둘 다 멸망한다.

그리고 그 짐승이 붙잡혔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그 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다. 이 둘은 유향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다. 요한계시록 19:20.

다니엘이 이교(사탄)의 상징으로 히브리어 '지속적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 온 존재가 사탄임을 밝히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었다. 다른 두 세력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활동한다. 다니엘이 '타미드'(지속적인)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의도적이었고 정확했다.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신 자들에게 내리는 화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가 28장에서 30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이것을 판에 기록하고, 책에 적어, 후세를 위해 영원히 남게 하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을 일삼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와 의 율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는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속이는 것을 예언하라' 하며, '길에서 물러나라, 행로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씀을 멸시하고, 압제와 사악함을 신뢰하여 그것에 의지하였으므로, 이 죄악이 너희에게는, 높은 성벽에 불룩 솟아 곧 무너지려 하는 금과 같이 되어, 그 붕괴가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가 그것을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이 깨뜨리듯 부수실 것이요,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 부서진 데서 아궁이의 불을 굽어낼 만한 조각도, 웅덩이에서 물을 떠낼 만한 조각도 찾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돌이켜 안식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사야 30:8-15.

기록된 "판"은 하박국 2장의 판들을 가리키며, 그것들은 읽는 자가 "달려" 가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판"을 "기록"해 둔 "책"은 하박국서이다. 하박국서의 그 "판"은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녀들, 주님의 율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을 드러내는 시험 과정을 나타낸다. "듣는 것"을 거부하는 그 "패역한 백성"은 예레미야에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자들이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레미야 6:17.

패역한 자들은 이사야의 역사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역사에서도 듣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 6:9, 10.

이사야의 귀먹은 반역자들은 “들을 수는 있지만” “듣지” 않으며,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드러낸다. 하박국의 “책”에 언급된 “표”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악인들이요 또한 마태의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사야의 귀먹은 반역자들이 듣기만 한다면 회심하여 치유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 귀먹은 반역자들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을 제시하셨다.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고, 귀는 둔하여 들을 줄 모르며, 눈은 감았으니,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게 될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마태복음 13:10-17.

지혜로운 자들은 비유의 신비, 곧 한 줄 한 줄로 드러나는 진리를 이해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보고 들으므로 복이 있으며, 지혜로운 자와 복 있는 자는 둘 다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하박국의 “책”에 언급된 “판”으로 표현된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자들이며, “복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끝날 때까지 감추어지고 봉함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겠으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며, 악한 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천이백구십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 12:9-13.

밀러주의자들은 이교('the daily')가 서기 508년에 '제거'되었을 때 1,335일이 시작되었다고 올바르게 이해했다. 1843년에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복이 약속되었다. 그 구절의 'cometh'라는 단어는 'touches'를 의미한다. 1843년은 끝날 때 1844년에 '닿았다'. 1843년이 끝나자 하박국의 '지체하는 때'가 도래했고, '판들'을 언급한 '책'에서 명한 대로 기다린 이들에게 복이 선포되었다. 하박국의 '책'은 그 환상을 '기다리라'고 명했다.

다니엘은 1798년(종말의 때)의 역사를 지목하는데, 그때 그의 책이 봉인 해제되었고, 이어 세 단계의 시험 과정(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됨)이 나타났다. 그 과정은 일곱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드러남으로써 결론에 이르렀다. 그 숨겨진 역사는 첫 실망, 한밤중 외침의 기별, 그리고 대실망으로 대표되는 진리의 세 이정표이다. 첫 실망에 이르는 복은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그 역사의 끝에 있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상징한다.

1798년의 역사에서 1844년의 큰 실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1989년의 역사에서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예표한다. 첫 번째 실망 때 지체되기 시작한

그 목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다니엘 12장의 '지혜로운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며 '기다리는' 자들이다. 악인들은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자들이다. 밀러주의 운동의 모든 경험은 다니엘서의 네 구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그 구절들은 또한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역사를 대표한다.

그 네 구절에 나타난 거룩한 역사는, 하박국의 판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와, 예수께서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으로 가르치시며 지적하신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예언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에 비유를 거듭하여 제시하셨다. 다니엘 12장에서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그들의 무지가 진리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 그것이 강한 미혹을 가져온다고 한다. 바울의 편지에서 악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진리는 'the daily'였고, 다니엘의 네 구절에서 특별히 지목된 예언의 진리 또한 'the daily'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회심하지 못하도록 보거나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과 그들을 대조하셨다. 다니엘 12장에서 복 있는 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다니엘 12장의 네 구절과, 그 구절들이 밀러파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과, 이사야서에서 듣고 보기를 거부한 한 부류와의 대조와,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두 부류를 구분하신 것, 이 모두가 2020년 7월 18일에 도래한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를 가리킨다. 첫 실망에서 시작된 밀러파 역사상의 최종 시험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볼 것이고, 다른 이들은 보기를 거부할 것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자기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여진 것들을 본 눈은 복이 있도다."

"기별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일에는 지체가 없어야 한다. 이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무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한 기별이 곧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큰 외침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437.

윌리엄 밀러는 천사들의 인도로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화이트 자매는 그 이해가 옳았음을 직접 입증했다. 그 이해는 하박국의 "책"에 언급된 "판들"에 나타나 있으며, "장차 올 때를 위한 것"이다. 그 "책"의 봉인이 열리면 "반역하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드러난다. "자녀들"은 마지막 세대를 상징하므로, 이사야의 구절에서 말하는 "장차 올 때"는 특별히 조사심판의 마지막 날들을 가리킨다.

이사야는 "책"에 기록된 "도표"에 제시된 예언의 기별을 "거짓을 말하는 자녀들"이 거절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는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거짓을 예언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 거짓을 말하는 자녀들의 요구를 성취해

가는 점증적 과정을 시작하였다. 그 일은 이사야가 밀러주의 기초의 옛 길을 거절하는 것으로 묘사한 바와 같다. 그들은 "너희는 길에서 물러나라, 도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 길, 곧 그 도는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6:16.

"거짓의 자녀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들"을 거절한 것은 곧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며,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이사야에서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안식과 새롭게 하심"이며, 또한 늦은 비 기별의 새롭게 하심이기도 하다. 그 기별은 밀러파의 역사 속에 표상되어 있으며, "책"에 언급된 "도표들"에 도해된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다. "거짓의 자녀들"의 그 기별 거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기들 앞에서 "그치시게 하라"고 원하는 그들의 태도로 표현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 종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실 엘렌 화잇의 첫 환상은, 그 시작에 있는 빛을 표시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길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의인의 길을 드러낸다.

"그들 뒤에는 길의 시작점에 밝은 빛이 세워져 있었는데,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하였다. 이 빛은 그 길 전체를 따라 비추어 그들의 발에 빛을 주었으므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곧 몇몇은 지쳐서, 성까지는 너무 멀다고 말하며, 이미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치자,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이들은 경솔하게도 자신들 뒤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발아래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훈, 57.

처음에도 끝에도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의 빛이었다.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떠나시기를 원했던 이는 예수(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였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에서 나오는 빛은 '책'에 기록된 '도표'들 위에 표상된 대로 한밤중의 외침의 빛이었다. 그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과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그 길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져왔다. 갑자기 무너지는 그 '높은 벽'은, 곧 닷칠 일요일 법령 때 파괴될 정교분리의 '벽'이다. 그 심판은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것이며, '토기장이의 그릇이 산산조각 나듯' 될 것이다. 그것은 'the daily'라는 사탄적 상징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것과 연관된 심판이다.

참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구나! 토기장을 진흙처럼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겠느냐? 빛어진 것이 자기를 빛은 이에게 '그에게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16.

'데일리'는 다니엘서 12장에서 악인과 지혜로운 자의 구별을 밝혀 주는 네 구절을 서로 연결하는 예언적 진리이다. '데일리'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이 미워하는 진리이다. '데일리'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기들 길에서 비켜나도록 만들려는 욕망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들의 징벌은 토기장의 그릇이 깨지는 것으로 표현되며, 남아 있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 주는 상징이다. 이는 그곳, 산산이 부서진 토기장의 그릇에서 남은 파편들 가운데서는 '화덕에서 불을 가져올 조각이나, 구덩이에서 물을 떠낼 조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물'은 모두 성령의 상징이며,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도 마찬가지다. 1844년 8월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밤중의 외침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때, '거짓된 자녀들'은 어떤 기름(물이나 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첫 실망 이후 예레미야처럼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주의 말씀을 찾아 내가 그것을 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는,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으니,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끊임없고, 나의 상처는 낫지 않으며 치유되기를 거부하는가? 주께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대하여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우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6-21.

예레미야는 첫 번째 실망 이후에 돌아온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 앞에 서서' 주의 '입'과 같이 되기 위하여,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흠어진 상태를 깨닫고, 그 후 레위기 26장 기도를 드린, 9장에서 다니엘로 대표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니엘과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의 파수꾼들로 대표되는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녀들'과 대조된다. 그 '거짓말하는 자녀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돌아와 안식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부르심을 받았다.

밀러의 보석들은 하박국의 표들에 나타난 진리들로서,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시험을 나타낸다. 그 보석들을 거스르는 반역의 상징은 "상번제"이다. 밀러는 "상번제"에 대한 이해에서 정확했지만, 그의 이해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해 제한되었고, 그가 방 한가운데의 탁자 위에 늘 올려놓던 그 보석들은 이제 밀러가 처음 그것들을 자신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이제 그것들은 더 큰 상자 안에 있는데, 그 상자는 밀러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성경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과 예언의 신 모두를 상징한다.

마지막 때 시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이며, 마지막 때 주요 전쟁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두 증인이다. 밀러는 그 싸움을 보았다. 그의 꿈에서 사람들이 그의 관(성경)을 가져가 찢어 버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밭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은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저술 모두의 기별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올라이 강의 환상이 나타내는 진리들에 대한 고찰을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우리의 과거 역사 가운데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만 그러하다.” *Life Sketches*, 196.